

광주 다중이용업소 '위법' 수도록

시, 불법건축물 1~2단계 특별안전점검 마무리

불법증축·불법 용도변경 등 132건 적발

광주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1~2단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8곳 중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7월말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불법증축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1개월여 동안 진행됐다.

1단계 점검에서는 감성주점 유사시설인 81곳 중 46곳에서 80건, 2단계 점검에서는 300㎡이상 유흥주점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법내용은 불법증축 37건, 불법 용도변경 20건, 화재안전 34건, 식품위생 19건, 기타(조경훼손, 주차장물건적치 등) 22건 등이 다.

불법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 부분에 증축해 음식점의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상무지구 사고현장인 감성주점처럼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구조변경 및 불법 증축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중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해 영업장 확장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한 소방안전비밀명 내용과 다르게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생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면적 불법 확장, 조리실 불량, 안전요원 미충족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1~2단계) 결과와 제3단계 점검계획을 각 지구에 시달하고 11월말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와 영업허가 부서에서 별도 진행된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대상건축물인 바닥면

적 합계 5000㎡이상, 집합건물 연면적 3000㎡이상, 광주시 건축조례 따른 영업장 면적 1000㎡이상 다

중이용업소 등 373곳이 점검 대상이다.

1~2단계 특별점검에서 점검하지 못한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 536곳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 2600여 곳에 대해서도 각 구청 영업허가 부서에서 자

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의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답적은 어른신 3일 오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대전 문혜의날 선포식 및 한마당에서 어른신들이 문혜골든벨을 하고 있다.

입주 한달 앞인데 해남아파트 옆 공동묘지 '어떡하냐'

입주를 한 달여 앞둔 해남지역 한 신축아파트의 인접 공동묘지가 이전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해남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위탁사인 더 베스트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2016년 12월 해남읍 해리 지역에 38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에 착수했다.

해남에서는 가장 큰 세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아파트에는 84㎡ 267세대와 116㎡ 113세대 등이 들어서며,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아파트 인접 공동묘지가 이전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청약 당시 분양 대행사는 입주 시까지 200기의 묘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묘 160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위

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 혐의로 집단 형사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 광고 때 공동묘지를 모두 이전하고 산책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지금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발 뻐 한다"면서 "청문을 열면 바로 앞에 수십개의 묘지가 보여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묘지 이전을 해주고 철쭉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준다고 해서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청약했다"면서 "지금은 공동묘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사를 꺼려해 고민이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입주예정자들은 해남군에 준공승인 불허 등을 요구하고 있고 명현관 군수와 면담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공동묘지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밖 구역의 문제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분양자 모집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부분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했다"며 "아파트는 9월 말 준공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용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탁사인 D사 관계자는 "분양 당시 분묘를 옮기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분양대행사가 허위 광고를 한 부분이 있는 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매가 안 돼 분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떠나 묘지 소유주인 교회측과 연말까지 분묘를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 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손가락 절단·붕합

2일 오전 11시28분쯤 담양 한 제조공장에서 기계 작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 A씨(28)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후 광주 병원으로 이송돼 손가락 붕합수술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기계작업 중 손가락을 다쳤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음주운전 지적에 피해자 차수차례 받은 20대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20대 만취 운전자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지적하는 피해자 차량을 수차례 들이받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고의 추돌사고를 낸 혐의(특수폭행 등)로 주모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광산구 신촌동 교차로에서 우모씨(23)가 탑승해 있는 차량을 추돌한 뒤 고의로 4~5차례 더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추돌사고 후 우씨가 "술을 먹었냐"고 지적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만 국적 30대 보이스포싱 사기범 검거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나려던 대만 국적의 30대 보이스포싱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3일 금융기관을 사칭해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통장에 있는 3000만원을 걸취한 혐의(사기)로 대만 국적의 A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2시3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서 B씨(67·여)가 비닐봉지에 넣어둔 현금 3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포싱 조직의 절취책으로 범행을 위해 1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취책은 피해자가 보이스포싱 조직의 사기에 속아 지정한 곳에 놓아 둔 돈은 빼내오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이스포싱 조직은 이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모두 인출해 현관 앞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수십분째 통화 중인 것을 이상히 여긴 B씨의 아들이 집을 찾아오면서 발각됐다.

돈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달아나던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보이스포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받은 인천 고교 교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 받고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6%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인천시 구월동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를 한 시민은 인근을 지나가던 한 운전자였으며, A씨의 차량 운행을 이상히 여겨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